

2026년도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6. 10. 1(목) 10: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올해 양악부분은 지난해 대비 36% 증가한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ARKO한국창작음악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관현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창작자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바르게 심의하기 위해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평론가 및 연주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도 있고 때로는 치열하게 주장하며 다섯 작품을 선정하였다.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음악제(공연) 프로그램 구성의 긴장도와 관객과의 소통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축제로서의 기능과 결과물을 기대하며 협의하였다.

조금 아쉬웠던 작품들을 먼저 소개하면, 실내악 혹은 독주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듯한 인상의 작품이나, 작곡가가 본래 즐겨 사용하는 작품에 오케스트라를 입힌 듯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었다.

전자는 편성만 커진 것이고 후자는 관현악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아 어색하거나 불편한 연주가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관현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울림과 다채로운 표현, 합성 및 대비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내악 혹은 독주에 특화된 작품은 각 악기와 악기가 합성하여 나오는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기끼리 서로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본연의 작품에 기대어 접근하면 다양한 표현과 시도들 즉, 새로운 음향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현악만이 가지는 장점들을 충분히 사용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히 올해는 단순히 지원자 수, 작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높은 완성도의 작품과 세련되고 획기적인 관현악적 표현의 작품들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예년과 다르게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주법에만 몰두한 작품은 비교적 줄고, 관현악만이 가질 수 있는 합성된 소리 즉, 악기와 악기간의 자연적인 울림과 질감을 섞어 새로운 소리의 결과물을 만드는 작품들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상투적인 곡 전개방식이 아닌 감각적이고 새로운 전개방식이 눈에 띄었고, 새로운 음악어법과 다채로운 음향이 기대되는 작품들이 다수여서 논의 과정에 각자의 추천작들이 더 첨예하고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과 비록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출품했던 여러 우수한 작품들도 아창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른 기회를 통해 공연장에서 자주 연주되기를 기대한다.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